교수투고 고위급 재산공개 파문을 보며

국가존립 위협하는 '머슴들'

〈법대교수·법학〉 김 상 태

최근 김영삼정부가 시행하는 재산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고위공직자가 그간 긁어모은 재산과 타락상이 부분적으로나마 그 실상을 드러내었다. 실로 분통 터진다. 소위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그 자리의 위세를 빌어 개인적 치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재산도 감추고 줄여 발표한 것이라 하니 기막힐 노릇이다. 머슴(公僕)들이 하라는 일은 않고 주인의 곡간을 이처럼 들어먹었으니, 국민의 배가 고플(空腹)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타락이 단순히 국가경제를 좀먹는다는 차원을 떠나,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과 근로의욕을 앗아간다는 점이다. 온갖 이권과 세력확장을 둘러싼 암투 이외에 도대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던가. 사회계층간에 두터이 쌓인 상호불신이나 위화감의 주범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의 치부과정은 나라전체로 본다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점에서 간첩행위와 그다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간첩행위가 발각되면 처형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썩지만, 부패한 고위관리나 정치인은 제대로 처벌된 예가 드물고, 오히려 지자손손 명맹거리며 산다. 이번 집권당 의원의 재산공개파문은 30년 군사통치의 작폐가 집약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단죄하는가에 개혁의 일차적 성패가 걸려 있음을 김영삼정부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벌써 재산의 사회환원이니 공익재단의 설립이니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다분히 '정치적'처리가 파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명색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국가에 헌납했다가 2년만에 마음 바뀌어 재산을 슬그머니 다시 찾아간 웃지 못할 코메디도 있지 않은가? 법절차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물론 사법처리는 재산보유의 실상과 그 취득과정의 완전한 규명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자발적'이라는 이름의 압력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합리적 기준을 찾아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청렴정치의 제도화를 더이상 미루어서는 아니된다. 이 대목은 결국 깨끗한 정치를 위한 환경이랄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신한국시대의 스무고개 한토막. 다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아맞추어 보라(힌트:한때 우리 사회에서 각광받던 직업임).

1. 국가의 고급재보나 기밀을 빼낸다.
2. 거액의 활동자금을 몰래 따로 받는다.
3. 신문의 취잠에 능하다.
4. 나라의 인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5. 실제로 두손 것을 하는지는 마무로 모른다.
6. 업무의 성격상 이중인격을 갖게 된다.
7. 돈걱정은 하지 않고 지낸다.
8. 외국을 자주 들락거린다.
9.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10. 순발력이 뛰어나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11. 일반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한다.
12. 가족을 생각하는 정이 갈발하다.
13. 재수가 없어 당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14. 언제나 비상시에 대비하는 버릇이 있다.
15. 전력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16. 남이 피라는 국가의 민족을 위해 목숨바쳐 일한다고 자부한다.
17. 무지몽매한 국민은 그 마음을 다 훌라준다.
18. 동업자들끼리는 금방 알아본다.
19. 언젠가는 내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에 산다.
20. 들통나면 끝장이다.

정답:고위공직자. 그러나 「간첩」도 맞는 답으로 간주한다.

한주메모

▲22일-엘친 '비상통치' 선포 러정부 최악 국면. 내달 25일 국민투표 강행. 의회 강력 반발. 美·日 등 서방 엘친 지지.

-민자의원 161명 재산공개, 100여원이상 8명.

-교육부, 내신조작비리 교사 파면 방침. 교장도 책임 물어 중징계.

-민예총 사단법인 새출발, 상반기중 등록 추진. 시대변화 부응 합법 공간 마련 겨냥.

▲23일-'재산공개' 도덕성 파문. 동산제외 손자손녀 위장분산축소, 무연고 곳곳 땅 공지악용 투기의혹.

-정부 올해 중소기업에 1조원 투입. 신경제비일계획서에 밝혀, 경총은 공산품 값 1년간 동결 발표.

-러시아 헌법재판소 엘친 비상통치 위헌 여부 심의. 루츠코이 부통령 무력대결 위협 경고.

-프랑스 총선 집권사회당 참패. 1차 투표 1석도 못 얻어 우파연합 78석 차지.

-한국자동차보험 노조탈퇴 강요 관련 압수 수색.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관련 처음.

▲24일-남아공 핵폭탄제조시인. 89년까지 6개, 90년 모두 해체.

-행정규제 6백70건 완화. 일반농지담보 대출 가능, 주식 소유한도 폐지, 도시형 업종 확대, 휴게음식점 한밤 영업 허용.

-축제 민자의원 김대통령 조치 검토.

-수도권 교통망 대폭 신설 국토개발연구원 토론회에서 격자 형 10개 고속도로 전철 등 제시. 2011년까지 23조 6천억원 투입 계획.

▲25일-민자의원 20여명 정밀조사, 의원직 사퇴 5명선 될 듯, 김대통령 "남득할 조치" 지시. 일부 형사처벌 가능성. 박준규의장 사의표명.

-제적대학생 전원 복직 당무결정·시국·학내분규 관련 1천3백여명.

-엘친 의회 타협 실패, 비상통치철회. 의회, 인민대회소집 탄핵강행.

-경제 5단체장 회견, 대기업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밝혀.

-中, 홍콩 반환 후 군 주둔 배제, '안정·번영 지속의지 확고' 총서기 '1국2체제'정책 고수 밝혀.

-교육부·전교조 관계자 해직교사 복직문제 논의.

▲26일-민자, 의원 재산파문 조기 수습키로. 이번주 조사 마무리. 김윤기 의원 사법처리 방침. 박준규 유학성 임훈원씨 등 의원직 사퇴 종용.

-금리출자 인하 은행예금 0.5%, 대출 0.5-1.5%. 제2금융권도 1% 내려.

-한국은행 발표 지난해 성장률 4.7%, 12년만에 최저. 건설침체 설비투자저조. 1인당 국민소득 6천7백49억달러 세계 40위.

▲27일-민자 재산공개파문 15명선 처리 원칙 매듭. 국방부의원 김문기씨 의원사퇴. 추가 적발여부따라 원칙 유동적.

-방화동 등 김포공항도 주변 고도제한 전면 해제, 상업지역 고도제한도 완화.

개량 극복 힘있는 투쟁

냉철한 정세분석으로 활로 찾아야

-전국 연합 대의원회의 보고

지난 3월21일(일) 본교 크라운관에서는 제2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연합 대의원대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제2기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일뿐만 아니라 신정권 출범후 예진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정치정세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식변화에 발맞추어 이후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진영이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아래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할 민민운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이후 새로운 운동방향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김영삼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본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중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제에서 말하고 있는 지속적인 대중운동이란 이전처럼 어떤 계기나 쟁점을 바탕으로한 소위 바람잡이식의 대중운동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 정책실에 있는 우상호씨는 "다양화된 계급분화 현상과 성장한 국민들의 권리의식, 국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 운동, 지역운동 등 다종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결집하여 민민운의 양과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대중운동의 변화에 기초하여 제2기 사업기조를 크게 4가지로 내놨다. 하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운동방향과 진로를 모색하고 대중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며 둘째는 경제민주화, 약법개폐 등 민주대개혁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며 이를 통해 김영삼 정권에 개혁을 압박하고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 셋째는 민중생존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주통일 사업의 비중을 한층 강화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올 한해는 운동진영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전 보다 더 힘든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권의 각종 개량화 조치에 운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때 그대로 체제 내화 될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지금까지의 대중운동의 성과자체가 다시금 원점으로 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민민운 진영은 새로운 대중운동을 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즉 모든 계급계층을 포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대중운동을 펴 나갈 때만이 운동진영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가진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文責 : 정미경記者〉

학문·생활·투쟁의 공동체

기획특집 — 한총련 건설의 의의와 전망

◇지난 91년 전대협 총회에서 굳건한 결의를 내오는 모습

'백만의 힘과 지혜로 일구어온 전대협, 4천만의 가슴과 역사에 깊이 남아 그 힘으로 건설한다리 ! '라는 기치아래 지난 20일 본교에서는 93년 '전대협 마지막 총회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하 한총련) 건설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184개 소속대학 가운데 123명의 총학생회장과 2백여명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92년 전대협 총회에서 93년에는 한총련 건준위 체계를 구성하여 전총련을 건설한다는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대협 발전적 해체와 한총련 건설에 관한 안건을 토론한 끝에 재적인원 184명, 투표인원 123명 찬성111명, 반대 4명 기권8명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서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전국적 지도력의 부재라는 경험을 토대로 건설·강화 되어 왔던 전대협은 5년 5개월간의 빛나는 투쟁의 역사를 일단락 지으며 과거속으로 사라졌으며, 이의 발전적 대안인 한총련으로 다시 한번 탄생되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전대협의 역사속에서 나타났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대협이 지니고 있었던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자주적 학생회를 전면적,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 한총련의 건설이다. 90년 이후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학우들의 요구들 또한 무척 다양화 되었으나 이를 전대협이 올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조화를 낳아왔었다.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발전, 변화한 것에 대해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전대협의 당위적이고 원칙적인 사업형식과 체계로는 자주적, 의식적으로 자치하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주변의 많은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 변해가는 현실속에서 운동전반의 불확실함과 자기운명의 불안감, 운동방식의 관성화, 자아만족적인 사고는 한총련 건설의 커다란 걸림돌로 다가온다.

이러한 전대협 역사의 오류들을 분명히 되짚고 학우들, 대중속으로 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 간부와 학우의 단결을 모색하고 거기에서 한총련이 나아갈 길을 밝힌 총노선에 대한 폭넓은 고민의 방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커다란 의의이다.

현실의 호름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의 정신과 진실된 반성, 새로운 혁신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관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후 총노선 수립의 방도가 제시되었다. 대의원들은 이후 의장과 지역, 학교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할 것과 각 학교 선거시기와 간부수련회 등에서 나온 자료집을 토대로 한 총노선의 내용 설정, 학교단위 학생회를 통한 총노선 수립의 밑바탕 마련을 결의하였다.

총노선의 대중적 수립과 이를 통한 한총련의 건설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대회의 회원 자격을 각 단과대 학생회장, 부문 계열 대표, 중앙간부로까지 확장시킴에 따라 보다 폭넓은 요구의 수렴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백만학도의 통일단결을 기반으로 학우들의 학문, 생활,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할 것, 나아가 보다 높은 단결을 위해 전국 학생 연합회 건설을 목표로 첫발을 내딛은 한총련.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대안마련이 이후 학생운동의 발전과 전진을 기대케 한다.

〈특집부〉

전대협 오류 발전적으로 승화 '학우속으로'

정부지원 실무위주 장기전문과정 연구생모집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국내 정보화, 자동화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상공부산하 연구교육기관으로
국가 정보화, 자동화 산업의
조기실현에 적극 참여코자하는
젊은 두뇌를 찾습니다.

"일본 첨단 정보 산업체 I.G.S.사와 연구개발사업 공동추진 기술제휴"

분야	정원	주요내용	자격	특징
SE과정 (Software Engineering)	30명	컴퓨터 기본불수이론 및 S/W 공학을 이용한 회계, 인사, 생산, 자재관리 시스템 구축.	· 전산관련학과 전공자 · 비전공자로서 전산 기초교육 이수자	국내 최장기 수료생 배출(1,500여명 기업체 종사중)
FA과정 (Factory Automation)	30명	μ-Processor를 이용한 Control-System개발, Protocol분석 및 통신 S/W, H/W개발	· 이공계 전공자 (전기,전자 기초이론부터 교육)	요소제어에서 FA구축 기술까지 마스터하는 국내유일의 과정
CAD/CAM과정 (Computer aided Design/Manufacture)	25명	설계기초, 2D,3D Modeling & Shading, Programing을 통한 Customization개발	· 기계, 건축관련학과 전공자 · 비전공자중 (CAD/CAM)에 관심이 있는자	능동적인 실무위주 교육(수료후 전된 전문설계능력 보유)
SP과정 (System Programming)	20명	O/S:System Architecture핵석 Device Control,Multi Media 및 Application Program 구현	· 비전공자로서 전산기초교육 이수자(H/W구조이론부터 교육)	컴퓨터제원을 파악하여 고부가가치 S/W 개발능력배양

교육기간
· '93.4.26~'93.10.8(6개월)
· 월~금: 09:30~18:20(8시간)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93.3.22~'93.4.10
· 장소 : 교육훈련부(강남역 하차 (국기원 일구 전자회관 10층)

특전
· 전원취업알선(성적우수자 우선)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비 40% 정부지원.

제출서류
· 지원서(본원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문의
☎ 558-2526~8
■ 지원서 우편접수 :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808호

과정설명회
· 일 정 : 4월 2일, 4월 9일 (원서교부기간중 매주 금요일)
· 시 간 : 15:00 - 17:00(2시간)

상공부 산하기관
KITRI 韓國情報技術研究院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본원 : 강남구 역삼동 648
TEL. 558-2526~8
FAX. 558-1806

분원 : 구로구 구로동 188-12
TEL. 838-6438~9
FAX. 838-6439